

5·18 당시 거리방송 차명속씨 지금은?

# 그날의 악몽 털고 5·18 알림이 앞장

“눈앞에 시민들이 쓰러지던 그 모습을 어찌 잊겠어요. 평생 품고 갈 자신이 없어서 80년 5월을 16년동안 지우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분들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5월을 대하려고 합니다.”

경북 안동시 옥동에서 흥어전문점 ‘행복한 집’을 운영하고 있는 차명속(여·53)씨는 입구에 걸린 5·18 시비(詩碑) 사진을 보며 감회에 젖었다. 담당 촬영 출신인 그녀는 80년 5월, 치열했던 광주에 한복판에 서 있었다. 광주 시민군의 선봉에서 눈과 귀의 역할을 하며 방송활동에 참여했다.

80년 당시 20세이던 그는 서구 양동 ‘국제양재학원’에서 양장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돈벌이 대학에 들어가 언론 공부를 하고 싶었다”는 그는, 상담에서 대학생들과 소통하며 독재 정권의 실상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5월에는 ‘군인들이 쳐들어 온다더라’ ‘광주가 첫 번째 목표가 됐다’는 등 소문이 돌면서 민심이 흉흉했죠. 제가 다니던 남동성당 김성률 신부의 권유로 나중에 내려갔지만 보름만에 광주의 실상을 확인하고 싶어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찾은 광주는 혼란 그 자체였다. 시위는 광주 전역으로 확산, 곳곳에서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계림동 쪽에서 10명정도 되는 남학생 무리들이 ‘광주가 고립돼 통신도 방송도 안 나온다. 누군가 나서서 상황을 전파해야 시



80년 5·18 당시 가두 방송활동을 했던 차명속씨가 자신이 운영 하는 음식점 입구에 걸린 5·18 시비(詩碑) 사진과 추억담 나누기 행사 사진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다.

## 80년 가두방송... 시민군 눈과 귀 역할 담당 출신... 경북 안동서 흥어집 운영 죄책감 벗어나 타지서 '5월 뜻 되새겨'

민들 스스로 광주를 지킬 수 있다”며 도움을 청하던데요. 마이크를 잡았고, 소식 쪽지를 받아 읽었어요. ‘군인들이 광주 외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적이었던 시위는 21일, 도청에 시신 2구가 들어오면서 격해지기 시작했다. 시민군은 무기를 들고, 그와 함께 그도 더욱 바빠졌다. “질서를 유지해 주십시오”, “물과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상황전파와 질서유지도 또 다른 임무였다.

군인들이 광주 시내로 들어오면서 곳곳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했고, 차씨는 더 바빠졌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더 이상 피해가 커지면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 순진했죠. 그런 생각이 방송을 한 것을 보면...” 그때를 회상하며 그는 한숨을 쉬었다.

도청 일대에서 집중 사격이 이뤄졌던 21일 오후, 그때를 기억하는 차씨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시민 대표들이 협상을 하던 중이어서, 도청 앞에서 평화 시위가 계속되며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이었죠. 헬기가 뜨더니, 군인들의 사격이 시작되더군요. 순식간에 핏방울이 거리를 적셨고, 사람들은 비명을 질러댔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울음도 안 나더군요. 그러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정신없이 도망갔죠”

그 뒤로 차씨는 더 이상 마이크를 잡을 수 없었다. 그날의 공포와 ‘내가 한 방송이 많은 사람을 죽게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5월만 되면 그 ‘아픔’이 온몸을 옥죄인다.

시위 시작부터 마이크를 잡았다는 이유로 그는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 80년 경찰에 연행돼 군사법정에서 10년형을 선고 받은 그는 81년 12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서울에서 남편을 만나 89년 안동으로 내려왔다. 조사 과정에서 고문과 욕설로 차씨는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그를 보는 세상의 시선, 그 중에서도 다시 찾은 광주의 외면이었다.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무산시 행사 불참”

518기념재단·광주전남진보연대, 보훈처장 사퇴 농성 선언

5월 관련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5·18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못 하게 할 경우 기념식 불참 및 국가보훈처장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5월 관련단체와 5·18 기념재단, 광주·전남진보연대(이하 진보연대)는 13일 5·18 기념재단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정오까지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기다린 뒤 국가보훈처가 공식적으로 이 노래 제창을 식순에 넣지 않을 경우 기념식 불참 및 국가보훈처장 사퇴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할 방침이다.

진보연대는 이날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식 제창 배제와 새 기념곡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행태는

임을 기다린 뒤 국가보훈처가 공식적으로 이 노래 제창을 식순에 넣지 않을 경우 기념식 불참 및 국가보훈처장 사퇴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할 방침이다.

진보연대는 이날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최근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식 제창 배제와 새 기념곡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행태는

5·18 민주화운동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진보연대는 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은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를 위해 흘린 민중들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배어 있고 지금도 부당한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선 민중들의 투쟁 현장에서 불리는 살아있는 노래”라고 강조했다.

진보연대는 마지막으로 국민대통합을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5·18 33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광주시민과 함께 제창할 것을 요구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신군부 항거 해직기자들, 명예회복 나선다”

'80년 해직언론인협 1000여명, 5·18 관련법 포함 요구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기사 검열에 항거하다가 해직당한 기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활동이 다시 추진된다.

13일 '80년 해직언론인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80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신군부의 광주학살 보도 금지에 항의하면서 검열 및 제작 거부를 벌였다가 해직당한 기자 1000여명을 광주항쟁의 한 부분으로 인정, 5·18 관련법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80년 광주항쟁 기간 전국적인 언론인 투쟁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5·18 기념재단, 기자회견, 80년 해직언론인협회 등이 공동으로 언론인 투쟁 관련 백서를 만드는 등 역사적 기록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5·18 당시 투쟁하다가 사망, 부상하거나 투옥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당시 국내언론이 정권의 나팔수 노릇만 한 것이 아니라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법률, 역사, 사회, 문화적으로 공론화해 더 늦기 전에 후대에 뚜렷하게 남기고 싶다”고 밝혔다.

5·18 당시 신군부가 주도한 언론인 강제 해직 사건은 199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등에 따라 공개적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 민주화 보상심

의위원회를 통해 해직 기자 중 200여명을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했지만 5·18 당사자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1980년 불법감재해직언론인의 명예회복 및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4차례 제출됐으나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해직 기자들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80년 언론인 투쟁을 5·18 민주화운동의 일부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오는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자 날 기념 토론회'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한국언론 아디로 가고 있다'를 주제로 80년 해직 기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기자 날'은 제작 거부 투쟁을 시작한 1980년 5월 20일을 기념해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2006년 제정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문학적 “빛고을문학관 재검토” 한목소리

작가회의, 특별감사 촉구 성명서 발표

광주전남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는 13일 고문단·회장단 모임을 열고 “광주시·시의회는 문학관 건립 추진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의혹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황 추진위원장을 비롯, 추진위원 전원은 총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가회의는 “광주시는 문학관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도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추진체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작가회의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형 김현승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광주전남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는 13일 고문단·회장단 모임을 열고 “광주시·시의회는 문학관 건립 추진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의혹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황 추진위원장을 비롯, 추진위원 전원은 총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가회의는 “광주시는 문학관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도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추진체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작가회의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형 김현승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광주전남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는 13일 고문단·회장단 모임을 열고 “광주시·시의회는 문학관 건립 추진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추진체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작가회의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형 김현승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광주전남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는 13일 고문단·회장단 모임을 열고 “광주시·시의회는 문학관 건립 추진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의혹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황 추진위원장을 비롯, 추진위원 전원은 총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가회의는 “광주시는 문학관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도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추진체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작가회의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형 김현승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광주전남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는 13일 고문단·회장단 모임을 열고 “광주시·시의회는 문학관 건립 추진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의혹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황 추진위원장을 비롯, 추진위원 전원은 총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가회의는 “광주시는 문학관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도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추진체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작가회의는 1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을 번복하고 허당크 호명을 주장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문학관” 발행인 송광룡 대표는 “잘못된 추진위원 구성으로 부지, 건립, 콘텐츠가 연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황 위원장을 상대로 발전 기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명성예식장측에 요구한 경위와 발인 배경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빛고을문학관 건립 추진 위원들의 호선으로 뽑아놓은 위원장을 경질하거나 교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시민여론을 수렴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이날 해방자료에서 “빛고을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심하게 선정된 문학관 후보지의 가격협상 대상 순위를 뒤바꿀만한 중대한 하자 또는 사정변경이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당초 협상 순위대로 가격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희기자 kiskypark@

## 정규직 사원모집

당사는 광주 삼성전자(주) 중, 대형 금형 수정/제작 전문 1차 협력업체로서, 2013년 물량증가 및 사세확장으로 인한 (광주 첨단2단지 내) 현지 공장 신설로 인하여, 참신하며 책임감 있으며, 근면 성실한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인원	자 격 요 건
금형사상 (조립/분해)	00명	- 초보 가능 / 관련 직종 경력자 우대 - 사출금형(중/대형) 유경험자 우대
CAD/CAM	00명	- 학력 : 무관
CNC M/C	0명	- 나이 : 21~45세 이하(군필 및 이에 준하는 신분) - 관련부문 자격증소지자 우대
CNC 방전	0명	- UG 프로그램 사용자 우대(CAD/CAM)
와이어커팅	0명	-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사 출	0명	- 식당 / 청소 : 나이제한 없음
3차원 측정	0명	사내식당 유경험자
식당/청소	0명	사내청소 경험우대/초보가능

- 근무지 : 광주 첨단2단지 내
- 기 간 : 총원시 까지
- 급 여 : 면접후 결정
- 구비서류 : 1) 이력서.....1통  
2) 사진.....2매  
3) 주민등록등본.....1통  
4) 건강진단서.....1통  
5)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복지혜택**  
- 4대보험, 상여금(300%), 퇴직금, 기숙사, 근속수당, 성과제 인센티브  
- 사내식당(조, 중, 석, 야식제공), 생일축하금, 명절선물, 월회식비지급  
- 연/월차,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

**전형방법**  
- 전화 후 회사방문(매주 목, 금요일 14시 정기 면접) / 구비서류 지참  
- FAX 및 E-mail 접수가능(yooull@naver.com)

**(주) 신 흥 정 밀**  
TEL. 054-473-6697 FAX. 054-473-6698 HP. 010-6309-2488

##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7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형항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과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중-4738호